

“국내 경기 개선 흐름 이어갈 것”

한은, 기업 구조조정·신흥국 경기부진·투자심리 회복 지연 등 영향 성장경로 불확실성은 높아

한국은행은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세를 나타낸 국내 경기가 앞으로 도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조선·해운 등 기업 구조조정과 중국 등 신흥국의 경기부진, 투자심리 회복 지연 등의 영향으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한은이 27일 발표한 '2016년 5월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16개 지역본부가 지역 내 업체와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4~5월 중 국내 경기는 수출 감소세가 지속됐으나 내수를 중심으로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생산 동향을 보면 수도권과 호남권, 강원권, 제주권에서는 증가세를 보였으나 충청권과 동남권, 대경권은 전기 대비 포함 수준을 나타냈다. 다만 조선·해운업 등이 몰린 동남권의 경우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 등에서 부진한 모습이었다.

서비스업·소비 '호조'...수출 부진
4~5월 서비스업 생산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호조세를 보였다.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난 데다 지난 6월 임시공휴일 지정에 힘입어 국내 나들이객도 증가하면서 1분기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제조업 생산은 휴대전화와 자동차, 기계설비 등이 부진했으나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이 전분기 수준을 나타냈고 철강 등이 증가하면서 포함세를 나타냈다.

소비가 좋아졌다. 수도권과 호남권



유럽 HDR 위성방송 시연 LG전자는 지난 26일(현지시각)부터 이틀간 유럽 룩셈부르크에서 열리는 'SES 인더스트리 데이(SES Industry Day)'에 참가해 LG 올트라 올레드 TV로 HDR 위성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연했다고 27일 밝혔다.

등 대부분의 권역에서 자동차, 휴대전화, 스포츠용품 등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했다. 제주권의 경우 인구유입 지속, 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제 등 시행 등으로 소비가 호전됐다.

수출은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감소세를 나타냈다. 앞으로도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철강 제품가격 회복, 반도체 수요 회복 등으로 감소폭은 다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설비투자는 전기 대비 포함세를 유지했고, 건설투자는 대부분의 권역에서 소폭 증가했다.

주택매매 가격은 정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가 둔화됐다. 대구와 경북 등 대경권에서는 하락했고, 나머지 권역에서는 상승세가 둔화됐다. 앞으로도 흐름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부산·울산·경남 서비스업 감소
부산, 울산, 경남지역 등 동남권은 서비스업이 감소하고, 소비가 포함세를 나타냈다.

조선·해운 등 일부 기업들의 경영실적 악화로 지역 행사 등이 축소되면서 음식·숙박업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부동산·임대업이 위축되면서 전 권역 중 유일하게 서비스업 생산이 감소했다.

소비도 동남권에서는 전기 대비 포함에 머물렀다.

보고서는 "향후 동남권은 소비심리 회복이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제조업 생산에서는 증가세를 보였다. 조선·기계업의 부진에도 철강업의 가격 경쟁력이 회복됐고, 주택분양 호조에 따른 물량 확보 등으로 전기 대비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단기간 내에 회복이 힘들 것으로 예측했다. /안진수 기자

“로봇시대에도 인간 의사 필요”

“로봇수술기 발전 방향은 의사 판단을 돕는데 있다”

“로봇시대에도 인간 의사는 필요 한 존재로 남을 것이다. 수술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간 의사의 적절한 판단력과 경험, 인적 유대 관계가 필요하다.”

캐서린 모어 인튜이티브서지컬 전략 부사장은 26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미디어 브리핑을 열고 “로봇수술기는 인간 의사의 조작에 따라 훌륭하게 수술할 수 있 다는 것을 입증한 단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인튜이티브서지컬은 로봇수술기 '다빈치' 시리즈로 세계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의료용 로봇 제조업체다.

모어 부사장은 “인튜이티브서지컬의 기술 발전 방향은 인간 의사가 어떻게 하면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면서 “예를 들어 종양을 충분히 제거했는지, 환자 신체의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지 등에 있어서 판단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모어 부사장은 “(로봇) 자율수술이 가능해지려면 하나의 회사로는 불가능하다. 수만명이 오픈소스로 수년간 협업해야 그 수준에 근접한 인공지능(AI)을 개발할 수 있을 것. (자율수술이 가능하려면) 그 AI가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도 아직 파악 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모어 부사장은 개복수술과 복강경 수술 등 기존 의료기법 대비 로봇수술의 장점으로 인간을 뛰어 넘는 미세 조정능력을 꼽았다.

그는 “로봇수술기를 이용하면 인간의 손으로 도저히 다룰 수 없는 미세혈관 등 작은 기관을 수술할 수 있다”면서 “절개 부위를 줄여 출혈이나 합병증,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안진수 기자

롯데홈쇼핑, 6개월 프라임타임 업무정지

미래부, 9월 28일부터 매일 오전·오후 8~11시 6시간씩

롯데홈쇼핑이 방송법 위반으로 오는 9월 28일부터 6개월간 매일 6시간씩 홈쇼핑 방송을 할 수 없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롯데홈쇼핑에 대해 9월 28일부터 6개월간 매일 6시간(오전 8~11시·오후 8~11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27일 밝혔다. 업무 정지는 롯데홈쇼핑의 협력사와 납품업체 보호를 위해 4개월 뒤인 9월 28일부터 집행된다. 오전·오후 8~11시는 매출 최고시간대로 '프라임 타임'으로 불린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4월 진행된 TV 홈쇼핑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의 조치 요청에 따라 미래부는 방송법 제18조 등의 이유로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전 롯데홈쇼핑은 업무정지에 따른 비정규직 부당해고와 용역계약의 부당해지를 양측은 경진대회를 8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안진수 기자

이로 인해 제조업(4.4%→6.4%)과 대기업(4.2%→6.2%) 모두 영업이익률이 상승했다. 중소기업도 3.6%에서 5.1%로 오르며 개선세를 보였다.

영업활동 수익으로 금융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이자보상비율은 413.8%로 전년(329.1%)보다 상승했다. 영업이익이 증가한 영향이다.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도 전년도 28.8%에서 지난해 28.1%로 다소 줄었다.

그러나 이자보상비율이 0% 미만인 곳은 17.5%에서 19.2%로 늘어났다. 100곳 중 약 20곳은 영업적자를 내고 있다는 얘기다.

수익성이 좋아지면서 기업들의 장기적 채무상환 능력도 개선됐다. 기업의 부채비율은 106.5%에서 100.9%로 하락했다. 차입금 의존도도 26.5%에서 26.0%로 줄었다. /안진수 기자

기업 성장 '뒷걸음질' ... 수익성은 향상

지난해 매출액 증가율 -2.4%로 '최저' ... 매출액영업이익률은 5.2%로 전년보다 상승

수출 부진에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국내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특히 마이너스를 기록한 제조업과 대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의 감소세는 더 확대됐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15년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 법인 기업 1만936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기업 매출액 증가율은 -2.4%로 전년도(-0.3%)보다 나빠졌다. 이는 지난 2003년 통계 편제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기도 하다. 특히 제조업과 대기업의 매출액 증

가율은 감소 폭이 더 확대되며 성장에 뒷걸음치는 모습이었다. 제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지난해 -1.9%에서 지난해 -4.2%로 급락했다. 대기업의 매출액 증가율도 -0.7%에서 -3.8%로 하락했다. 제조 대기업의 경우에는 -5.4%를 기록했다.

지난해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가격 하락과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세 둔화 등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컸기 때문이다. 석유화학(-16.8%)과 금속제품(-7.8%) 등에서 위축세가 두드러졌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매출액 증가

율이 전년도 2.2%에서 4.2%로 성장하며 2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 국내 부동산 경기 호조 등으로 중소 건설사 중심으로 매출이 좋아진 영향으로 분석됐다.

반면 기업의 수익성은 좋아졌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은 5.2%로 전년도(4.3%)보다 확대됐다. 매출액세전순이익률도 같은기간 3.9%에서 5.3%로 상승했다.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좋아진 것은 수출물가보다 수입물가가 더 많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44개국 참가 '기아차 정비사 경진대회'

세계 44개국의 기아자동차 해외 정비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차량 정비실력을 겨뤘다.

기아차는 해외 우수 정비기술인력 육성을 위해 지난 23일부터 4박5일간 서울 동작구 현대자동차그룹 남부연수원과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제8회 전세계정비사경진대회(KIA Skill World Cup 2016)'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아차가 2002년부터 격년으로 개최하는 전세계정비사경진대회는 올해로 8회째를 맞았다. 해외 기아차 딜러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고 각 국가 및 지역 예선에서 우수한 정비기술을 인정받은 55명의 본선 진출자 및 기술정보 교류를 위한 참관인 45명이 참석해 총 100명이 방한했다.

참가자들은 경진대회 첫 날인 24일 필기시험을 치르고 25일에는 실제 차량 및 부품을 직접 검사·정비하는 실기시험을 치렀다. 26일에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금상 수상자인 그레고리 마이클(미국·33)씨를 비롯해 은상(2명)·동상(3명)·장려상(3명) 등 9명이 수상했다. /안진수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